

뉴스 & 뉴스

직능직 선출기준제정 요청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덕운)는 8월 23일 49차 회의를 열고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 기준을 제정할 것을 중앙총회에 요청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또 법주사 법어사 등 종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교구에 대해 조속한 보궐선거 시행을 촉구키로 했다.

불교여성교육원 실행팀 선임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연)은 8월 21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정 불교여성교육원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실행팀을 선임했다.

포교원은 이 실행팀을 중심으로 (가)불교여성교육원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계획해 빠르면 연말쯤, 늦으면 내년 초 불교여성교육원을 정식 발족한다.

경승단 소식지 '등불' 창간

대한불교경승단은 소식지인 <등불> 창간호를 15일 펴낸다. 30쪽 내외의 소책자로 발행될 이 소식지는 경찰불자의 불교교양과 소속감을 확대하고 경찰불교회의의 활동연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승활동 및 포교 매체로서 역할하게 된다.

법타스님 공권정지 4년6월

조계종 재심회계원(원장 월서)은 8월 27일 제18차 심판부를 열어 법타스님(은혜사 주지)에 대해 공권정지 4년6월, 율파스님(전 통도사 주지) 문서견책, 해인스님(제주 약천사 회주) 공권정지 1년6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법타스님의 징계 확정으로 은혜사는 1개월 이내에 산중총회를 열어 새 주지 후보를 선출, 총무원에 주지임명을 품신해야 한다.

사찰들 '산 지킴이' 나섰다

시민·환경단체와 연대 환경보존운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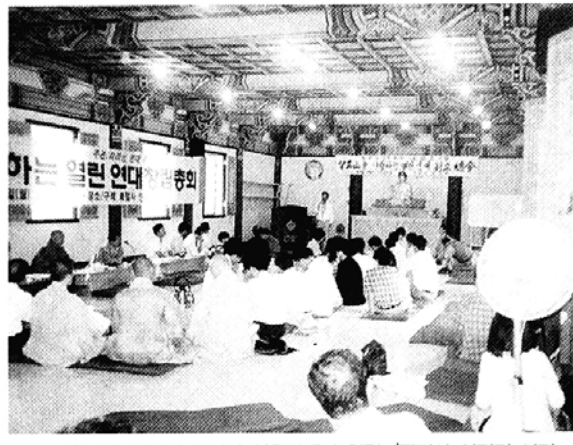
"지리산·오대산·가야산등 무분별개발 막자"

8월 23일 오후 2시 지리산 화엄사 연화당.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 쌍계사 총무 법광스님 등 지리산의 대표 사찰 5곳의 스님들과 진주·순천·남원·대구 YMCA와 서남대, 순천대 총학생회 등 지역 20여개 단체 50여명이 모여 '지리산살리기 시민연대(공동대표 도법스님)' 출범식을 가졌다.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지리산지역 폐교를 활용하여 지리산역사·생태 박물관으로 만드는 등 지리산의 역사발굴 활동도 활발하게 벌일 예정이다.

일 가지산지킴이 시민경각대회를 개최한다. 울산시불교신도회, 태화강보존회, 환경운동연합 등 3천~4천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날 경각대회는 지역단체들과 시민이 참여하여 울산시가 추진중인 가지산일대 상암지구건설 개발계획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있는 해인사(주지 보광)는 가야산을 관통하는 59번 도로건설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인사는 지역민 및 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실질책임자인 경남도지사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등 가야산의 훼손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8월23일 지리산 화엄사 연화당에서 열린 '지리산 살리기 시민연대' 창립대회. 쌍계사 화엄사 실상사 대원사 법화사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단체가 연대하는 오대산 지키기는 정기적인 환경정화활동에 열목어 치어 방생, 산중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불교성지 오대산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

이같이 사찰들이 지역의 시민·환경 단체와 연대하여 벌이는 '산 지킴이운동'은 자연정

"일본인들에 한국불교 알린다"

해인사·합천군, 내년 사찰수련회 마련

오부치총리의 해인사 참배를 계기로 부쩍 늘어난 일본인 관광객들이 늘어난 사찰에 머무르며 한국불교를 체험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양 법문 좌선 암자순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해인사 포교국장 경성스님은 "해인사가 법보종찰인 점을 감안해 사정에 비증을 들 방침"이라며 "한국사찰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인만큼 해인사를 소개하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대불청 서울지구 화장유언 10만서명운동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회장 박찬용)가 서울시 시장 참여 사업공모 대상사업중의 하나인 장묘문화개선사업에 일장선다.

결쳐 서울역과 탑골공원, 봉은사 등지에서 화장유언 동참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박찬용 회장은 "일반시민들에게 화장의 중요성과 이점을 알려 장묘문화의 새로운 틀을 형성하는데 불교계가 일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축법개정 피해조사

의 피해실태를 확인하고 교계에서 추진중인 전사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조성준의원은 "문화적 환경적 차원에서 가지산 개발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에 전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계시판서 읽는 '부처님 가르침'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의 발 밑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해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특히 자기에게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서울 종합운동장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하철역 벽에서 이같은 법구를 볼 수 있다.

진관스님 석방촉구 고산스님, 청와대에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8월 26일 청와대와 국민회의, 검찰청에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와함께 재자연대 결별을 실천불교승가회등 불교계와 사회 9개단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안정착의 대대적인 혁신과 인적청산작업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축총림 해제 효력정지 판결

조계종 중앙총회의 영축총림 해제 및 통도사 3개 말사 직영사할 지점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강현안)는 8월 25일 율파스님이 제기한 '총림해제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영축총림 해제결의 및 관봉사, 해남사, 문수사의 직영사할 지점은 영축총림 해제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수맥탐사 advertisement. Text: 건강하고 복을 받으려면 수맥을 피해 집을 지십시오. Includes a list of symptom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yeonggang Suimakwon.

Advertisement for a Dharma Dialectics course. Text: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강의. Includes details about the course structure and contact info for the Korean Dharma Research Institute.

Advertisement for '신묘장구대다라니' (Newly discovered sutra). Text: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향토삼백초. Includes an image of a person in a field and contact info for Sambu Farm.